19강 교환에 대한 가라타니 고진의 입장

1. 가라타니 고진의 입장

1.1 상징적 교환에 대한 가라타니 고진의 입장

◇ 소비사회에 포획된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 보드리야르가 우리에게 제안한 전략은 상징적 교환symbolic exchange을 활성화시키자는 것이다.

→ 나와 타자 사이의 일체의 것들을 선물의 논리에 입각해서 생각하자는 것이다.

◇ 우리는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 1941년 출생)의 사유를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보드리야르와 마찬가지로 그도 인간과 사회를 교환의 논리로 사유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가라타니 고진은 보드리야르가 제안했던 상징적 교환, 즉 증여의 논리에 대해 일정 정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 가라타니 고진은 교환의 논리를 네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가 '호혜적 교환', 둘째는 '수탈(과 재분배)의 교환', 셋째는 '자본의 교환', 그리고 마지막 넷째 앞의 세 가지 교환을 극복하려고 제안된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이란 교환'이다. 보드리야르의 상징적 교환은 가라타니 고진의 '호혜적 교환'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 "첫째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교환이다. 이것은 증여-답례라는 호혜적 교환이다. 이 교환은 상호부조적인데, 답례에 응하지 않으면 마을에서 따돌림을 당할 정도로 공동체의 구속이 강하고 또 배타적이다."(『일본정신의 기원』)

◇ 기본적으로 가라타니 고진은 호혜적 교환, 즉 상징적 교환이 자연발생적 공동체로부터 강한 구속을 받는 낡은 형태의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2 남(NAM: New Associationist Movement)의 원리

◇ 가라타니 고진에 따르면 현재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사회적 형식은 '자본capitalism-민족nation-국가state', 즉 삼위일체로 결합된 구조다.

◇ '호혜적 교환'이 민족으로, '수탈(과 재분배)의 교환'이 국가로, 그리고 '자본의 교환'이 자본주의로 흡수되고, 이 세 가지 교환 논리가 하나로 통합된 사회가 우리의 삶의 장이라는 것이다.

◇ 칸트는 타인을 수단만이 아닌 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세계공화국을 지향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 『트랜스크리틱』, 『윤리21』, 그리고 『세계공화국으로』라는 책에서 가라타니 고진은 자신이 얼마나 창조적으로 칸트를 독해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 가라타니 고진은 새로운 교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적 형식을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꿈꾸는 운동을 남(NAM), 즉 "새로운 어소시에이션 운동"이라고 부른다.

◇ 가라타니 고진이 꿈꾼 '어소시에이션'은 다음 그의 말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사람들이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으로 분리되어 있는 한, 자본의 축적 운동과 자본주의 생산관계에 대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본과 국가에 대한 대항 운동은 단순한 노동자 혹은 소비자 운동이 아니라 초국가적인 <소비자로서의 노동자> 운동이어야 한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